

# 우리나라 정보시스템 연구에서 근거이론방법론 현황 분석과 적용 지침 제시\*

이 옹 규\*\*

## 〈목 차〉

I. 서론	V. 근거이론의 적용 지침
II. 근거이론방법론	5.1 연구방법론의 단계별 구분
2.1 핵심 특성	5.2 연구과정의 명시적 정리
2.2 코딩	5.3 연구 주제의 다양화 추구
2.3 연구현황	5.4 확장과 이론적 통합 강화
III. 연구방법론	VI. 결 론
IV. 연구결과	참고문헌
4.1 연구내용 분석	<Abstract>
4.2 방법론 분석	

## I. 서론

근거이론방법론(grounded theory methodology)은 오래 전부터 사회과학 연구분야에서 가장 자주 채택되어 온 질적 연구방법론 가운데 하나였다. 근거이론방법론은 원칙적으로 기존 이론의 검증이 아니라 새로운 이론의 개발을 위해 제안되었다. 특히 다른 질적연구방법론과 달리 비교적 정형화된 원칙과 절차가 있고 아울러 데이터와 관찰에 기반한 귀납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이론방법론은

현상에 대한 원인과 결과 그리고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탐구를 중시하는 실증주의(positivism)와 연구자의 직관이나 해석에 의해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려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해석주의(interpretivism)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법론이다(Urquhart et. al., 2010).

최근 정보시스템 분야에서도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근거이론방법론을 채택하는 연구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Wiesche et, al., 2017; Birk et. al., 2013; Matavire and Brown, 2013). 특히 오랜 세월 동안 정보시스템 연구는 고유의 이론이나 연구모형을 갖지 못하고 있는 정체성의

\* 이 논문은 대구대학교 교내학술연구지원에 의해 지원되었음(20160446)

\*\* 대구대학교 경영학과, woong3041@empal.com(주저자)

위기(identity crisis)를 겪고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예; Baskerville and Myers, 2002). 근거이론방법론은 정보시스템 연구 분야에서 지적되어 온 정체성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향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어 왔다(Matavire and Brown, 2013; Urquhart et. al., 2010).

하지만 이와 같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보시스템 연구 분야에서는 근거이론방법론을 채택한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많은 연구들이 계량적 분석을 동반하는 조사연구와 같은 특정 방법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정보시스템연구’에 게재된 309편의 논문 가운데 약 60%에 해당하는 185편이 계량적 분석을 동반하는 조사(survey)연구인 것으로 알려졌다(류성열, 박상철, 2018). 즉, 우리나라 정보시스템 연구방법론은 이론의 개발보다는 기존 이론을 기초로 가설을 세우고 이를 입증하려는 양적 패러다임(quantitative paradigm)에 의한 실증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김효근 등, 2003; Orlikowski and Baroudi, 1991).

아울러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이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 역사, 사회, 상황 등을 반영한 정보시스템 이론의 출현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 다른 나라에 비해 우월한 정보환경과 정보화 수준을 가지고 있고 더욱이 양적으로도 결코 적지 않은 논문이 출간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고유의 환경을 설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연구를 찾아보는 것은 쉽지 않다. 근거이론방법론은 우리나라 정보시스템 연구가 갖

고 있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 정보시스템 연구 분야에서 근거이론방법론의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실적으로 근거이론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근거이론방법론의 핵심적인 특성과 코딩 등과 같은 기본 개념을 검토하고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어 왔는지를 기존 연구 결과를 통해 검토한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연구 현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정보시스템 연구에 근거이론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한다.

## II. 근거이론방법론

### 2.1 핵심 특성

원칙적으로 근거이론방법론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핵심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Urquhart et. al., 2010). 첫째, 근거이론방법론의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론 구축이다. 대부분의 조사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이 제안된 이론을 검증하는데 비해 근거이론방법론은 이론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Birk et. al., 2013).

둘째, 연구자들은 자신이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을 배제해야 한다. 근거이론방법론에 의한 연구는 기존 이론에 의해 의존하지 않고 순수하게 얻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론을 구축하기 위한 지침이다(이용규, 2015). 하지만 연구자의 사전지식에 대한 역할

은 근거이론방법론에 있어 항상 논란이 되고 있다. 이론개발을 위해서는 타당한 원칙이지만 사실상 사전지식과 선입관 없이 어떤 현상에 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Birk et. al., 2013). 실제 상당수의 기존 연구에서도 사전 지식을 적극 활용하였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Wiesche et. al., 2017).

셋째, 분석과 개념화는 데이터 수집과 지속적 비교를 동시에 수행하여 도출된다. 근거이론 방법론에서는 어떤 이론이나 이론 구성을 위해 필요한 개념과 범주는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들은 새로 수집된 자료와 비교하여 새롭게 보강되어 새로운 개념이나 범주를 생성하고 이론화된다. 이 원칙은 근거이론방법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다. 즉, 다른 방법론과 달리 데이터 수집이 끝난 후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수집과 개념화를 위한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넷째, 데이터의 수집은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에 의한다. 표본의 설계나 데이터의 수집은 미리 계획된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존 표집 방식과 비교된다. 이론적 표집에서는 표본의 장소나 시기 또는 크기 등이 이제까지의 분석에서 나타난 이론에 의해 결정되고 이 작업은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즉,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된다.

## 2.2 코딩

근거이론방법론의 구체적인 작업은 코딩

(coding)에 의해 이루어진다. 코딩이란 “이론 구성을 위해 데이터를 분화(fraction), 개념화(conceptualization), 통합(integration)에 의한 분석 과정이다(Strauss and Corbin, 1998). 코딩은 다음과 같이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 이론코딩(theoretical coding) 등이 있다.

- 개방코딩: 자료 검토를 통해 현상을 발견하고 그 현상에 대해 명명(naming) 하고 다시 이를 범주화(classification)시키는 분석작업을 말한다. 개방코딩을 통해 필요한 개념을 도출하고 유사한 개념을 정렬/통합하면서 추상성이 증가하는 하위 개념을 도출한다. 범주의 개발에서는 그 범주가 갖는 속성과 차원화를 고려한다. 즉,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개념들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 축코딩: 개방코딩의 연장으로 개방코딩에서 발견되는 범주들과 하위범주들을 구체적으로 연결시키고 그것들의 변화와 과정의 증거를 찾는 과정이다. 즉, 개념과 개념의 관계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축 코딩은 패러다임(paradigm) 모형에 의해 정리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패러다임 모형은 범주들을 각각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구조로 구분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련성을 나타내는 도구다.
- 선택코딩: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중단하고 핵심 범주를 찾아내어 핵심범주와 관련된 범주들을 정교화하는 과정이다. 핵심범주는 모든 범주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일종의 이론이 될 수 있다.
- 이론코딩: 선택코딩을 통해 얻어진 개념을 비

교분석을 위해 타 이론과의 통합을 시도하는 과정이다.

코딩을 실제 방법론에 적용할 때 접근법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소위 Strauss and Corbin(1998)이 제안한 접근법에 의하면 개방코딩-축코딩-선택코딩인데 비해 Glaser(1992)는 개방코딩-선택코딩-이론코딩을 제안했다. 두 접근법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오늘날 상당 수의 연구는 Strauss and Corbin(1998)의 접근법을 따르고 있다.

### 2.3 연구 현황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보시스템 연구에서의 근거이론방법론 현황의 검토는 조사연구에 비해 매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Urquhart et. al.(2010), Matavire and Brown(2013), Wiesche et. al.(2017)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Urquhart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 연구에서의 근거이론 연구의 지침으로 지속적 비교(constant comparison), 단계적 개념화(iterative conceptualization),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 확장(scaling up), 이론적 통합(theoretical integration)을 제시하였고, 기존 연구들이 이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질적으로 평가하였다. 여기서 반복적 개념화는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등을 통해 개념화의 단계를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이고 확장은 범주들을 좀 더 높은 수준의 주제로 묶는 과정으로 이론의 일반화와 관련을 갖는다. 이론적 통합은 도출된 이론과 다른 이론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다. 하지만 이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연

구가 3편에 불과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Matavire and Brown(2013)은 근거이론 방법론에 대한 접근법이 연구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현상을 분석하였다. Glaser(1992)의 전통적 근거이론 접근법(개방코딩-선택코딩-이론코딩), Strauss and Corbin(1998)의 진화된 근거이론 접근법(개방코딩-축코딩-선택코딩), 근거이론을 혼합방법론의 일부로 사용한 접근법, 그리고 근거이론방법론을 데이터 분석 목적으로만 사용한 경우로 나누었다. 조사 결과 전체 76편의 연구 가운데 근거이론을 분석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총 34편(44%)으로 가장 많았고 진화된 방법론과 혼합방법론이 각각 18편(24%)이었으며 전통적 접근법은 6편(8%)에 불과했다.

Wiesche et. al.(2017)은 정보시스템 연구 분야에서 근거이론방법론의 연구 기여 방식이 반드시 이론 구축에만 있지 않고 모형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현상에 대한 풍부한 기술(rich description)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현황을 분석했다. 이론은 변수들이 제안되고 변수들 간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정당화 및 이론의 한계를 제시하는 경우다. 모형은 변수와 변수들의 관계만을 제시하되 관계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다. 반면 풍부한 기술은 개념에 대한 추상화 없이 실증적인 관찰을 표현한 경우다. 총 43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10편의 논문만이 이론구축을 하였고 나머지 33편은 모형개발과 새로운 현상에 대한 풍부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세 가지 형태 모두 방법론의 적용에 큰 차이가 없었을 뿐 아

나라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상당 수의 연구들은 근거이론방법론은 엄격하게 따르고 있지 않다. 가령, 많은 연구는 선택코딩이나 이론코딩을 선택하고 있지 않고 자신의 연구 주제에 맞도록 개방코딩과 축코딩만을 선택하고 있다. 둘째, 연구의 결과가 모형 구축이나 현상에 대한 풍부한 기술에 그친 연구가 매우 많을 뿐 아니라 학문적 기여도도 이론 개발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근거이론방법론의 궁극적 목적을 이론 구축에 국한하기 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

### Ⅲ. 연구방법론

우리나라의 정보시스템 관련 학술지 가운데 경영학연구, 정보시스템연구,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APJIS), Information Systems Review(ISR), 지식경영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등 여섯 개의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를 선정하여 키워드와 초록을 중심으로 일일이 검토하였다. 처음에는 2017년

부터 최근 3년의 연구로 국한하여 조사했지만 총 다섯 편의 논문에 불과하여 범위를 넓혀 2000년대 이후의 논문을 Google Scholar과 DBpia 등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찾았다. 그 결과 총 12개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논문의 수가 통계적 분석을 하기에는 지나치게 적기 때문에 3편의 논문으로 검토한 Urquhart et. al.(2010)의 분석방식에 따라 지속적인 비교, 단계적 개념화, 이론적 표집, 확장, 이론적 통합 등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12편의 논문을 상세 검토하였다. 12편의 논문을 검토한 결과 Urquhart et. al.(2010)의 기준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Wiesche et. al.(2017)과 Matavire and Brown(2013)이 제안한 기준을 고려하여 2차 검토를 하였다.

2차 검토 후 이론지향의 연구 뿐 아니라 실무지향의 연구도 검토해야 할 논문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상대적으로 실무지향의 성격이 강한 학술지인 산업정보학회학술지, 벤처창업연구를 포함하여 관련 논문을 재검색하였다. 새로 포함된 논문을 포함한 3차 검토를 통해 실무지향성 여부 이외에 자료수집방식과 분석 과정에 상호 참조 여부를 기준에 포함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론을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 검토한 논문은 <표-1>과 같다.

<표-1> 분석대상 논문

번호	저자	제목	학술지명	연도
1	박상철, 이용규, 고준, 류성열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의 그림자 노동 메커니즘 규명 연구	경영학연구	2020
2	이용규	일시적 비사용과 사용 간의 동태적 상태 변화에 대한 연구: 근거이론방법론에 의한 접근	정보시스템연구	2019

3	박상철, 이용규	문헌 고찰을 위한 근거이론방법론의 활용: 디지털 환경에서의 그림자 노동 개념 도출	지식경영연구	2019
4	박지연, 김효근, 서현주	경영예술 개념 및 경영예술 창작 모형의 타당성 평가 연구: 근거이론적 접근	지식경영연구	2019
5	박상혁, 오승희, 박순화	사회혁신분야에서 근거이론 기반 질적연구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디자인 씽킹 방법론	벤처창업연구	2018
6	이용규	정보기술 비사용의 결정요인과 동태적 성격의 규명: 근거이론방법론에 의한 질적 연구	정보시스템연구	2018
7	박상철, 이용규	근거이론을 활용한 멀티채널 사용자의 크로스오버 쇼핑 행동 이해	ISR	2017
8	김경란	중국 이커머스 대행사업 등장과 효과에 대한 질적 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2016
9	홍순구, 이현미, 한세익, 김종원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에서 Co-creation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2015
10	김나랑, 홍순구, 이현미	근거이론에 기반한 청년 벤처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벤처창업연구	2014
11	설병문, 박상혁, 박종복, 김상표	근거이론에 따른 창업교육 인식에 관한 고찰	벤처창업연구	2014
12	주재훈, 김련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스마트그리드의 확산전략: 근거이론 접근법	정보시스템연구	2013
13	주재훈	시맨틱 웹 기술혁신의 채택과 확산: 질적연구접근법	APJIS	2009
14	최희재, 이준기	신기술 사용 과정에 관한 비교 사례 연구: 기술 전유 과정의 근거이론적 접근	APJIS	2009
15	백상용, 박경수	정보기술구현 내부확산단계에서 지식창조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정보시스템연구	2006
16	강소라, 김효근	나와 우리를 위한 지식이전 이론: 지식을 이전하는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상태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경영학연구	2005

#### IV. 연구결과

내용 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2>와 같다.

##### 4.1 연구내용 분석

<표-2> 연구내용 분석 결과

논문 번호	주제	이론/실무지향	연구결과	사전지식 반영	특기 사항
1	디지털 그림자 노동	이론지향	모형	반영 없음	세 가지 사례 분석
2	정보기술 일시적 비사용	이론지향	모형	분석에 반영	기존 연구 확장 및 SNS 사례 분석
3	디지털 그림자 노동	이론지향	풍부한 설명	반영 없음	문헌고찰

4	경영예술 창작모형	이론지향	이론	분석에 반영	기존 연구 타당성 검증
5	디자인 씽킹	실무지향	모형	반영 없음	새로운 방법론 제시
6	정보기술 비사용	이론지향	모형	결과에 반영	SNS 사례 분석
7	크로스오버 쇼핑 행동	이론지향	이론	결과에 반영	크로스오버 쇼핑 단계 분석
8	중국마케팅 기업의 이커머스 진출	실무지향	모형	반영 없음	중국비즈니스 전문가 면담
9	청년층 일자리 창출	실무지향	모형	반영 없음	신문기사 분석
10	청년벤처 창업	실무지향	모형	결과에 반영	창업인 분석
11	창업교육 인식	실무지향	풍부한 설명	반영 없음	창업교육 피교육자 분석
12	스마트그리드 확산	이론지향	모형	반영 없음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단지 분석
13	시멘틱웹 채택 및 확산	이론지향	모형	결과에 반영	공급자/사용자 동시 분석
14	신기술 사용 전유과정	이론지향	이론	반영 없음	두 병원 사례에 대한 종단적 분석
15	정보기술에 의한 지식창조 과정	실무지향	모형	결과에 반영	사례 중심 분석
16	나와 우리 차원의 지식이전 의도	이론지향	이론	반영 없음	지식경영 채택회사 분석

#### 4.1.1 주제와 실무지향성

주제 면에서 볼 때는 정보기술 분야의 전통적인 이론적 과제인 정보기술의 확산(diffusion) (주재훈, 김련화, 2013; 주재훈, 2009), 전유(appropriation) (최희재, 이준기, 2009), 지식이전 과정(백상용, 박경수, 2006)을 다루고 있다. 주로 횡단면적(cross-sectional) 차원에서의 분석보다는 계량적인 접근에서 다루기 쉽지 않은 과정(process)에 대한 관찰과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한편 최근 주목할 만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새롭게 관심을 갖는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그림자 노동(박상철 등, 2020; 박상철, 이웅규, 2019), 정보기

술 비사용(이웅규, 2019; 이웅규, 2018), 경영예술 창작모형(박지연 등, 2019), 크로스오버 쇼핑(박상철, 이웅규, 2017) 등은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던 주제다. 기존 연구 주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분야에서도 연구의 대상을 고정된 시점에서의 현상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론적 분야 뿐 아니라 실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연구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중국마케팅 기업의 이커머스 진출(김정란, 2017)이나 청년 일자리 창출(홍순구 등, 2015) 등이 대표적인 예다.

#### 4.1.2 연구결과

열여섯 편의 논문 가운데 2편은 이론이고 12편은 모형 그리고 2편은 풍부한 설명으로 되어 있다. 가령, 박지연 등(2019)은 새로운 모형을 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모형을 근거이론방법론에 의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박상철과 이웅규(2017)의 연구에서는 크로스오버쇼핑 행동모형을 제안한 후 예시적인 가상의 사례에 기반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검증하였다. 최희재와 이준기(2009), 강소라와 김효근(2005)은 선택코딩을 통해 자신이 제안한 패러다임 모형으로부터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였다.

#### 4.1.3 사전지식 반영

근거이론방법론에서 사전지식의 반영은 논란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전통적인 시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이전 연구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히고 있는 연구들이 있다.

박지연 등(2019)의 경우에는 1인 내레이션에 의해 만들어진 연구모형을 근거이론방법론에 의해 검증을 시도하려는 연구다. 하지만 단순히 검증을 위한 인터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과 범주를 찾아내고 기존 연구의 확장본으로서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는 등 적절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기존 연구모형을 보완 발전시켜 이론을 완성했다.

이웅규(2019)의 경우 이전 연구인 이웅규(2018)의 연구모형을 연구의 시발점으로 삼고 있다. 연구의 목적 자체가 기존 연구 내용에서 도출된 개념인 ‘일시적 비사용’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일시적 비사용’의 역할 규명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전 연구를 개념적으로 발전시킨 비사용의 일반모형을 도출하였다.

반면 상당 수의 연구에서는 사전 지식을 명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분석 결과에는 기존 연구 내용을 반영하였다. 가령, 이웅규(2019)의 연구에서는 기존 정보기술 사용에서 자주 인용되는 습관이나 태도 등이 새롭게 발견된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실상 기존 연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이런 현상은 실무지향의 연구에서는 발견되고 있지 않은데 비해 상당 수의 이론지향의 연구에서 발견된다(예; 박상철, 이웅규, 2017; 주재훈, 2009; 백상용, 박경수, 2006).

### 4.2 방법론 분석

방법론 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3> 방법론 분석결과

번호	자료수집방법			지속적 분석	상호참조 여부	소프트웨어 사용	코딩방법			모형제시		명제제시	유형제시	이론적 표집	자료수집기간(월)	표본 크기	확장	이론 통합
	인터뷰 기반	관찰 기반	문서 기반				개방 코딩	축소 코딩	선택 코딩	패러다임 모형	별도 모형							
1	o	x	x	o	o	x	o	o	x	x	o	x	x	o <sub>p</sub>	2	12	o	o
2	o	x	x	o	x	x	o	o	x	x	o	x	o	o <sub>p</sub>	1	25	o	x



3	x	x	o	u	o	x	o	o	x	x	o	x	x	x	-	18	x	x
4	o	x	x	o	o	x	o	o	o	o	x	x	x	x	-	6	x	x
5	o	x	x	u	o	o	o	o	o	x	o	o	x	x	0.5	9	x	x
6	o	x	x	o	x	x	o	o	x	x	o	x	x	o	-	23	o	x
7	o	x	x	o	o	x	o	o	x	x	o	x	x	o <sub>u</sub>	1	25	o	x
8	o	x	x	o	x	x	o	o	x	o	x	x	x	o <sub>u</sub>	2	16	x	x
9	x	x	o	o	o	o	o	o	x	o	o	x	x	x	-	89	o	x
10	o	x	x	o	o	x	o	o	x	o	x	x	x	o <sub>u</sub>	1	18	x	x
11	o	x	x	u	o	x	o	o	o	x	x	x	o	x	-	20	x	x
12	o	x	x	o	o	x	o	o	x	o	x	o	x	o <sub>u</sub>	0.25	41	x	x
13	o	x	x	o	x	o	o	o	x	x	o	o	x	o <sub>u</sub>	3.5	13	o	x
14	o	o	x	o	x	x	o	o	o	o	o	x	x	x	18	31	o	o
15	o	o	x	o	o	x	o	o	o	x	o	o	o	o	5	13	o	o
16	o	x	x	o	x	x	o	o	o	o	o	o	o	o	4	49	o	o

- o: 해당
- x: 해당하지 않음
- u: 불확실함
- o<sub>u</sub> : 해당하지만 불확실한 부분이 있음
- o<sub>p</sub> : 부분적으로만 해당

#### 4.2.1 자료수집방법

대부분의 연구가 인터뷰를 기반으로 코딩 작업을 했다. 그럼에도 홍순구 등(2015)의 연구에서는 선별된 신문기사, 박상철과 이용규(2019)의 연구에서는 관련분야 논문을 중심으로 코딩 작업을 했다. 한편 최재희와 이준기(2009)나 백상용과 박경수(2006)의 연구는 인터뷰 자료 이외에 프로세스에 대한 관찰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 4.2.2 지속적 분석 및 상호참조

대부분의 연구가 지속적 분석을 했다고 명시

적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지속적 분석을 위해 나선형 심화모형을 활용하여 두 번 이상의 면담 조사를 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예; 주재훈, 2009; 백상용, 박경수, 2006).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모형이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지속적 분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여한 연구자들이 각자 분석한 결과를 상호 참조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상당수 연구는 1인에 의해 이루어졌고 2인이 참여한 연구에서도 상호 참조가 했다는 흔적이 나타나 있지 않았다. 연구

자들끼리 상호참조를 했다고 명시한 연구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밝히는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 4.2.3 소프트웨어 사용

대부분의 연구는 분석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일부 연구에서 인터뷰 내용을 필사한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 NVivo를 사용하고 있었다(예; 박상혁 등, 2018; 홍순구 등 2015; 주재훈, 2009). 실제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던 것으로 보이는 연구에서도 소프트웨어의 도움 없이 연구를 진행하여도 연구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예; 강소라, 김효근, 2009).

#### 4.2.4 코딩방법

근거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기법인 개방코딩과 축코딩은 모든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다. 반면 선택코딩을 채택한 연구는 여섯 편에 불과하다. 선택코딩은 핵심범주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관련된 범주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이론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적절한 선택코딩은 모형을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대표적인 예가 강소라와 김효근(2005)의 연구와 최희재와 이준기(2007)의 연구다. 이들은 이 과정을 통해 지식이전의 유형과 구조화 과정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Matavire and Brown(201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대부분이 선택코딩을 취하지 않고 개방코딩과 축코딩만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은 근거이론방법론을 이론 개발이 아닌 데이터 분석용으로만 이용했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고 해

도 선택코딩을 취하지 않은 연구가 그렇지 않은 연구에 비해 이론적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다.

#### 4.2.5 모형제시

패러다임 모형은 범주를 그룹화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한 개념적 모형이다. Strauss and Corbin(1998)의 절차를 따르자면 패러다임 모형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패러다임 모형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대상 논문은 모두 Strauss and Corbin(1998)의 절차 가운데 하나인 축코딩을 채택하였고 Graser(1992)가 제안한 이론코딩을 채택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모든 연구가 Strauss and Corbin(1998)의 접근법을 따랐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한 연구는 여섯 편에 불과했다.

반면 패러다임 모형 대신 다른 모형을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 패러다임 모형만으로는 자신의 문제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본다. 가령, 범주들 간의 관계가 일방향의 타임라인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과정을 갖는 경우가 눈에 띄는 현상이다(예; 박상철 등, 2020; 박상철, 이용규, 2017).

#### 4.2.6 명제 및 유형의 제시

패러다임 모형이나 별도의 모형 제시와는 무관하게 관련 명제나 대상 문제의 유형을 제시한 연구들도 있다. 범주로 이루어진 모형을 통해 명제나 가설을 추출한 경우다(예: 주재훈과 김련화, 2013; 주재훈, 2009; 최재희, 이준기, 2009; 강소라, 김효근, 2005).

자신이 설정한 연구모형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좀 더 충실한 이론을 제공하려는 시도도 있었는데 두 가지 두드러진 방식이 있었다. 제시된 모형에서 범주의 속성을 달리하여 유형을 구분한 것으로, Strauss and Corbin(1998)의 선택코딩 절차를 충실히 따른 경우다(예; 최재희, 이준기, 2009; 강소라, 김효근, 2005). 반면 모형 상에서 아예 새로운 범주로 유형을 제시한 경우다. 이웅규(2019)가 대표적인 경우다. 일시적 비사용의 일반적 동태모형과 그에 따라 세부적으로 범주를 달리 채택한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 4.2.7 이론적 표집과 분석기간

이론적 표집은 근거이론방법론의 핵심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수의 연구에서는 실행여부를 밝히고 있지 않다. 오히려 몇몇 연구에서는 미리 설계된 표본을 통해 인터뷰를 수행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반면 명시적으로는 이론적 표집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론적 표집이 불확실하거나 부분적인 경우도 있었다.

분석기간은 1달 이내였던 경우가 다섯 건이고 아예 분석기간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도 다섯 건이었다. 반면 2년 반에 걸친 분석기간을 두고 중단연구를 수행한 최재희와 이준기(2009)의 연구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 4.2.8 확장과 이론통합

개념적 확장이나 이론 통합은 근거이론방법론에서 결과의 추상화 정도를 의미한다.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 이 부분은 매우 취약한 편이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를 통해 연구의 수준을 향상시켰다. 가령, 최재희와 이준기(2009)는 자신들이 제안한 모형을 이론화했을 뿐 아니라 이를 추상화하여 전유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한편, 강소라와 김효근(2005)은 자신들이 제시한 이론을 심리학과 토착심리학적 차원에서 연관관계를 논의함으로써 정보시스템 이론을 초월한 수준으로 자신의 이론을 확장하였다. 또한 이웅규(2019)의 연구는 다른 이론과의 연관관계를 논의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제시된 모형을 매우 일반적인 수준으로 개념화하였다.

## V. 근거이론방법론의 적용 지침

### 5.1 연구방법론의 단계별 구분

본 연구의 분석내용을 방법론의 효율성 차원에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단계별 산출물이 나름대로의 이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개방코딩과 축코딩만으로도 이론적으로 가치있는 결과물을 도출하고 있다. 개방코딩에 의해 도출된 개념과 범주만으로도 어떤 현상을 풍부하게 기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패러다임 모형이나 또 다른 변형된 연구모형을 구축할 수 있음을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보여 주었다. 물론 선택코딩 작업으로 이 단계에서 얻어진 결과물을 이론화하는 것은 당연히 이론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 점은 Wiesche et al.(2017)과 Matavire and Brown(2013)의 연구

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다.

둘째, 사전지식의 적절한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다. 사전지식을 배제해야 선입견 없이 얻어진 데이터로부터 통찰력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 근거이론방법론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도 하지만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이론에 대한 학습과 여러 연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가 사전지식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데이터만으로 현상을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이럴 경우 연구의 시점을 중간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다른 근거이론방법론 또는 다른 방법론을 통해 얻어진 사전지식을 연구의 시작점으로 삼아 새롭게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연구의 주안점을 선택코딩에 둘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근거이론방법론의 산출물의 방대성이 다. 실제 근거이론방법론을 채택한 연구자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는 방대한 양의 결과물을 정리하는 작업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산출되는 코드의 양이나 그에 대한 문서화 작업은 아무리 작은 규모의 연구라 하여도 엄청날 수 밖에 없다. 특히 개방코딩과 축코딩에서 도출되는 결과물은 대부분의 경우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 이 결과물을 정리하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코딩과 같은 작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론으로 정리되지 못하고 ‘모형’이나 ‘풍부한 기술’ 정도에 머무를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할 때 근거이론방법론을 적용할 경우 주어진 문제를 하나의 연구 단위로 묶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모형’과 ‘풍부

한 기술’ 정도를 제시할 수 있다면 이 부분만을 하나의 연구 논문으로 완성하고 ‘이론’으로의 확장은 후속 연구로 넘기는 것이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단계별 연구의 대표적인 접근방식은 박지연 등(2019)의 연구와 이웅규(2019)의 연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박지연 등(2019)의 연구 목적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전 연구의 타당성 검증이다. 이전 연구와 박지연 등의 연구의 기본 목표는 아직까지 경험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도 드문 분야에서의 통찰력을 얻으려는 것이고 그 통찰력은 학문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구의 시발점을 순수하게 귀납적인 방식에 두기보다는 전문가의 통찰력을 1인 나레이션에 의해 모형화하는 작업에 두었다. 이 과정 역시 코딩이나 지속적 비교와 같은 근거이론방법론의 중요한 원칙을 적용하였고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 반면 박지연 등(2019)의 연구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모형을 근거이론방법론에 의해 검증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기존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음에도 개방코딩과 축코딩 이외에도 선택코딩까지 충실히 적용하여 이론의 완성도를 높였다.

반면 이웅규(2019)의 경우에는 이전 연구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심화하는 것이다. 근거이론방법론적으로 해석하면 이전 연구가 개방코딩 및 축코딩에 의한 모형 제시라면 이웅규(2019)의 연구는 핵심범주를 찾아 그 범주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선택코딩이다. 하지만 이전에 얻어진 범주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코딩이 아니라 새로운 범주와 관계를 찾아내어 하나의 이론으로 완성한 코딩 작업이

다. 다시 말해 두 연구는 서로간의 관련성과 독립성을 동시에 갖는다.

## 5.2 연구과정의 명시적 문서화

흔히 근거이론방법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개방코딩과 축코딩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에서 개방코딩과 축코딩 작업은 명시적으로 밝혔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가 그 결과물인 개념과 범주 특히, 범주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핵심이 될 수 있는 지속적 비교와 이론적 표집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많은 연구에서 지속적 비교와 이론적 표집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음에도 실제 수행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연구의 논문화 작업에서 가장 집중하는 것은 최종 연구결과물인 개념 또는 코드와 범주 그리고 패러다임 모형이나 연구모형을 정리하는 일이다. 반면 결과물이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간단히 표현하거나 표본의 크기나 인구통계와 같이 계량화가 용이한 요인만을 강조하고 있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하여도 연구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교과서적인 개념을 기술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의 기술은 연구가 미리 계획된 방향대로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에 한해 유효하다.

하지만 근거이론방법론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지속적 비교와 이론적 표집은 연구의 진행을 예측할 수 없게 한다. 표본 수집과정에서 얻

어진 개념은 이전에 얻어진 개념을 바꿀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롭게 해석할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다. 표본의 설계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이론방법론에서는 지속적 비교와 이론적 표집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연구과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도출된 개념이나 범주가 어떤 식으로 생성되었고 어떤 비교 과정을 통해 수정되고 발전되었는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당연히 표본 설계횟수 역시 명시적으로 밝힐 뿐 아니라 각 단계별 표본 설계의 목적과 대상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론적 포화 상태가 그 이전 상태와 어떤 식으로 다른지도 밝힐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연구 진행과정 자체를 연구 결과 못지 않게 중요한 연구의 성과로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Gasson and Waters(2013)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들은 연구의 진행과정을 단계별로 밝히면서 어떤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유와 그에 따라서는 표본의 수집 방식에 대해 밝히고 있다. 각 단계별로는 수시로 이론적 메모(theory memo)를 제시하였고 연구의 중간결과물이나 시사점을 별도로 정리하였다.

## 5.3 연구 주제의 다양성 추구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나라 정보시스템 연구 분야에서의 근거이론방법론은 비록 양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주제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좀 더 다양한 연구 주제에 근거이론방법론을 적용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근거이론방법론으로 적합하기 좋은 주제는 정보시스템 현황을 상황에 기반하여(context based) 과정 중심(process-oriented)으로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경우로 알려져 있다(Urquhart et. al., 2010). 가령, 조직의 지식이전이나 전유 과정 또는 기술확산 과정을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할 때 매우 유용한 방법론이다(예; 주재훈, 김련화, 2012; 주재훈, 2009; 최재희, 이준기, 2009 백상용, 박경수, 2006; 강소라, 김효근, 2005).

따라서 역으로 해석한다면 “상황에 기반하여 과정중심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연구 분야에서는 근거이론방법론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전통적인 기술수용모형은 정보기술의 수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으려는 시도이다. 기존 연구의 패러다임으로 본다면 상황에 기반한 연구도 아닐 뿐 아니라 어느 한 시점에서의 현상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은 어느 한 시점에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상황에 불문한 이론을 추구할 수도 없다. 현재 시점에서 정보기술 수용의도가 높다는 것이 앞으로 계속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모든 기술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상황에 기반하는 과정중심의 설명은 특정한 경우라기 보다는 오히려 정보시스템 연구에 있어 다루어야 할 일반적인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 최근의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근거이론방법론을 적용한 국내 연구 역시 모든 현상을 과정 중심으로 간주하여 의미 있

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예; 박상철 등 2020; 이웅규, 2019; 2018; 박상철, 이웅규, 2017).

따라서 근거이론방법론은 우리나라 연구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계량분석을 동반한 조사분석 기반 연구의 대부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가령, Abraham et. al.(2013)의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수용모형에 관련된 연구는 횡단면적인 조사연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수용의 사례를 정해 일정기간 동안의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모형이나 이론을 도출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 논리를 확장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실무 분야에 근거이론방법론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무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횡단면적으로 구분지어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연구가 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는 점은 그런 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본다(예; 홍순구 등, 2015; 김나랑 등 2014).

#### 5.4 확장과 이론적 통합의 강화

근거이론방법론에 의한 이론개발의 요체는 상향식(bottom-up)에 의해 현상의 점진적인 추상화로 개념화하는 확장 과정이다. 그 자체적으로 모형화 과정이며 이론 구축과정이다. 따라서 모든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추상적인 개념화는 근거이론방법론의 중요한 목표다. 한편 이론적 통합은 개발된 이론의 정당화하면서 이론적 위치를 확인하고 좀 더 높은 수준으로의 발전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확장과 이론적 통합은 반드시 이론지향적 연

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실무적 연구에서도 이러한 추상화 작업은 반드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실무적 연구의 결론이기도 한 실행 가능한 대안이나 정책 방향은 그에 걸맞는 목표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실행 가능한 대안의 도출을 위해서는 실제 현황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목표나 비전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실행 가능한 대안의 도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확장과 이론적 통합 작업은 더 유효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홍순구 등(201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 VI.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보시스템 연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근거이론방법론의 국내 연구현황을 분석하고 이 분석을 기반으로 국내 연구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총 16개의 논문을 연구내용과 방법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네 가지의 적용 지침 - 연구방법론의 단계별 구분, 연구과정의 명시적 문서화, 연구 주제의 다양화 추구, 확장과 이론적 통합 강화 - 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정보시스템 연구에서 근거이론방법론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의 연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적 분석이 아닌 질적 접근방식에 의해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채택하였던 기준에 따라 각 연구들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기준을 첨가하여 분석하였다. 정보시스템

연구 분야에 근거이론방법론에 대한 현황분석이 이제까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론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를 했다고 판단된다.

둘째, 근거이론방법론을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침을 제시하였다. 기존 분석을 기반으로 들어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네 가지의 현실적인 적용 지침을 제시했다. 첫 번째 지침을 통해 근거이론방법론에 의한 연구에 도출되는 방대한 산출물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의 질적 향상은 물론이고 작업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지침에서는 연구과정 중심의 논문 작성을 통해 근거이론방법론과 다른 연구방법론과의 차이를 돋보이게 하면서 다른 방법론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이론적 통찰력과 기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지침은 근거이론방법론에 맞는 주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구 과제를 근거이론방법론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식을 변화할 경우 더 많은 연구기회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네 번째 지침은 추상적으로 그칠 수도 있는 확장과 이론적 통합을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유도한 지침이다. 이 네 가지 지침의 공통점은 근거이론방법론을 지금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상대적으로 적은 연구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신빙성(credibility) 즉, 현실에 대한 서술과 해석에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또 적은 표본을 통한 분석으로 인해 주관적 한계

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다시 말해 이전가능성 (transferability)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향후 더 많은 연구 논문이 작성될 경우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연구의 한 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정보시스템 분야는 물론이고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근거이론방법론의 연구현황 분석 결과의 비교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시도는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소라, 김효근, “나와 우리를 위한 지식이론 이론: 지식을 이전하는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상태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경영학연구, 제34권, 제3호, 2005, pp. 739-781.
- 김경란, “중국 이커머스 대행사업 등장과 효과에 대한 질적 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16권, 제6호, 2016, pp. 95-114.
- 김나량, 홍순구, 이현미, “근거이론에 기반한 청년 벤처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9권, 제3호, 2014, pp. 33-45.
- 김효근, 이현주, 문윤지, “한국 경영현상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의 재고-질적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제6권, 제2호, 2003, pp. 47-66.
- 류성열, 박상철, “‘정보시스템연구’의 연구주제와 서베이 방법론 동향분석”, 정보시스템연구, 제27권, 제4호, 2018, pp.1-33.
- 박상혁, 오승희, 박순화, “사회혁신분야에서 근거이론 기반 질적연구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디자인 씽킹 방법론”, 벤처창업연구, 제13권, 제4호, 2018, pp. 169-181.
- 박상철, 이용규, 고준, 류성열,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의 그림자 노동 메커니즘 규명 연구”, 경영학연구, 제49권, 제1호, 2020, pp. 31-50.
- 박상철, 이용규, “문헌 고찰을 위한 근거이론방법론의 활용: 디지털 환경에서의 그림자 노동 개념 도출”, 지식경영연구, 제20권, 제2호, 2019, pp. 183-195.
- 박상철, 이용규, “근거이론을 활용한 멀티채널 사용자의 크로스오버 쇼핑행동 이해”,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 19, No. 3, 2017, pp. 173-199.
- 박지영, 김효근, 서현주, “경영예술 개념 및 경영예술 창작 모형의 타당성 평가 연구: 근거이론적 접근”, 지식경영연구, 제20권, 제2호, 2019, pp. 155-182.
- 백상용, 박경수, “정보기술구현 내부확산단계에서 지식창조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정보시스템연구, 제15권, 제2호, 2006, pp. 125-152.
- 설병문, 박상혁, 박종복, 김상표, “근거이론에 따른 창업교육 인식에 관한 고찰”, 벤처창업연구, 제9권, 제3호, 2014, pp. 23-32.
- 이용규, “일시적 비사용과 사용 간의 동태적 상태 변화에 대한 연구: 근거이론방법론



- 에 의한 접근”, 정보시스템연구, 제28권, 제4호, 2019, pp.359-375.
- 이용규, “정보기술 비사용의 결정요인과 동태적 성격의 규명: 근거이론방법론에 의한 질적연구,”정보시스템연구, 제27권, 제1호, 2018, pp.1-20.
- 이용규, “<튜토리얼>비사용의 연구 주제와 연구 방법론”, 정보시스템연구, 제24권, 제3호, 2015, pp.1155-169.
- 주재훈, 김련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스마트그리드의 확산전략: 근거이론 접근법”, 정보시스템연구, 제22권, 제1호, 2013, pp. 223-246.
- 주재훈, “시맨틱 웹 기술혁신의 채택과 확산: 질적연구접근법”,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 19, No.1, 2009, pp. 33-62.
- 최희재, 이준기, “신기술 사용 과정에 관한 비교 사례 연구: 기술 전유 과정의 근거이론적 접근”,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 19, No.3, 2009, pp. 99-124.
- 홍순구, 이현미, 한세억, 김종원, “청년층 일자리 창출문제에서 Co-creation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산업정보학회지, 제20권, 제1호, 2015, pp. 91-102.
- Abraham, C., Boudreau, M-C., Junglas, I., and Watson, R., “Enriching our Theoretical Repertoire: the Role of Evolutionary Psychology in Technonolgy Acceptance”,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 22, 2013, pp. 56-75.
- Baskerville, R., and Myers, M. D., “Information Systems as a Reference Discipline”, MIS Quarterly, Vol. 26, No. 1, 2002, pp. 1-14
- Birks, D. F., Fernandez, W., Levina, N., and Nasirin, S., “Grounded Theory Method in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its Nature, Diversity and Opportunities”,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 22, 2013, pp. 1-8.
- Gasson, S., and Waters, J., “Using a Grounded Theory Approach to Study Online Collaboration Behaviors”,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 22, 2013, pp. 95-118.
- Glaser, B. G., Emergence vs. Forcing: Basics of Grounded Theory Analysis, Sociology Press, Mill Valley, CA, USA, 1992.
- Matavire, R. and Brown, I., “Profiling Grounded Theory Approaches in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 22, 2013, pp. 119-129.
- Orlikowski, W. J., and Baroudi, J. J., “Studying Information Technology in Organizations: Research Approaches and Assumption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2, No.1, 1991, pp. 1-28.
- Strauss A. and Corbin, J.,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Sage., 1998.
- Urquhart, C., Lehmann, H., and Myers, M. D.,

“Putting the ‘Theory’ back into Grounded Theory: Guidelines for Grounded Theory Studies in Information Systems”, *Information Systems Journal*, Vol. 20, 2010, pp. 357-381.

Wiesche, M., Jurisch, M. C., Yetton, P. W., and Krcmar, H., “Grounded Theory Methodology in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MIS Quarterly*, Vol. 41, No. 3, 2017, pp. 685-701.

#### 이웅규 (Lee, Woong-Kyu)



저자는 현재 대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경영과학 석사와 경영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KT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정보시스템 연구 편집위원장, ISR 편집위원장, 정보시스템 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정보기술의 전유, 정보기술 수용과 설득경로, 정보기술 사용의 내재적 동기, 정보기술의 지속적 사용 등과 같이 온라인 사용자 행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근거이론방법론과 같은 질적 연구방법론을 기반으로 크로스오버 쇼핑, 비사용 등과 같은 연구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Abstract>

## **An Analysis of Current State of Grounded Theory Methodology in Korean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with Suggestion of its Application Guidelines**

Lee, Woong-Kyu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grounded theory methodology in Korea information systems studies and to suggest its application strategies.

### **Design/methodology/approach**

After reviewing previous studies, this study reviewed 16 papers which adopted grounded theory methodology and analyzed these papers by two ways, research contents and methods adopted from grounded theory methodology: Main characteristics in grounded theory methodology are selected as main criteria in analysis such as data collection method, constant comparison, software use, coding ways, suggested model, proposition suggestion etc., while subject, theory/practice orientation, and role of prior knowledge are included in research contents.

### **Findings**

Based on the review and analysis, this paper suggested four guidelines for adopting grounded theory methodology to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in Korea: First, division of research methodology into stages. Second, explicit documentation of research process. Third, pursuit of diversity in research topics. Fourth, strengthening scale up and theoretical integration.

**Keyword:** Grounded Theory Methodology, Current State Analysis, Guidelines.

\* 이 논문은 2020년 3월 3일 접수, 2020년 3월 9일 1차 심사, 2020년 3월 11일 게재 확정되었습니다.